

2018. 4. 18.

동양철학 - 생명철학의 원칙

1. 생명이란 무엇인가?

하늘과 땅의 위대한 덕은 생(生)이다. (天地之大德曰生 - 주역)

하늘이 명령한 것을 성(性)이라 한다. (天命之謂性 - 중용)

공자 말씀하기를 “하늘이 나에게 덕(德)을 주셨으니 환퇴(桓魋)가 나를 어찌하리오.” (子曰 天生德於予 桓魋 其如予何 - 논어)

하늘(天)의 의미 : 자립(自立) 자주(自主) 자유(自由)

생명(生命)의 원칙 1 : 천명(天命)을 본성으로 부여받은 생명의 원칙

- * 모든 생명은 자립(自立)하며.
- * 모든 생명은 자주적(自主的)이며,
- * 모든 생명은 자유(自由)이다.

생명 원칙의 깨달음과 실천

- * 우리는 자기의 생명이 자립 자주 자유임을 자각(自覺)한다.
- * 동시에 타인의 생명 역시 자립 자주 자유임을 공감(共感)한다.

2. 불교의 가르침 - 연기(緣起) 무자성(無自性) 공(空)

* 팔정도(八正道) : ① 정견(正見) ② 정사유(正思惟) ③ 정어(正語) ④ 정업(正業) ⑤ 정명(正命) ⑥ 정정진(正精進) ⑦ 정념(正念) ⑧ 정정(正定)

* 연기(緣起)

저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고, 저것이 생하므로 이것이 생한다.
저것이 없을 때 이것이 있고, 저것이 멸하므로 이것이 멸한다.”(S.N. II .p.65)

* 연기는 인과율인가?

연기를 인과율로 이해하는 것은 냉정한 객관적 자연법칙을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연기설이 객관적 자연의 인과율이라면 제 1 원인으로의 무한 소급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존재는 다만 원인으로부터 유출되고 원인에 의해 지어진 것이라고 함에 지나지 않아 무상과는 무관한 설이 된다.

무상(無常)이란 우리가 고집하는 상주성(常住性)의 부정이다. 존재 A가 A로서 독립자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존재에 A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기설이 무상을 뜻한다는 것은, 연기설이 자연 인과법칙이 아니라, 우리들이 상주한다고 고집하는 존재를 부정하는 학설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벗이여, 마치 목재에 연하고 풀에 연하고, 벗짚에 연하고, 진흙에 연하고, 공간에 둘러싸여 가옥이란 명칭을 얻게 되는 것처럼, 벗이여, 뼈에 연하고, 근육에 연하고, 살에 연하고, 피부에 연하고, 공간에 둘러싸여 신체란 명칭을 얻게 된다.”(M.N. I . p.190)

여기에서 “명칭을 얻게 된다.”는 것은 “관념이 발생한다.”는 뜻으로서, 연기설이 이런 주관관념의 생기에 관한 학설임을 주목해야 한다.

* 연기(緣起)와 정견(正見)

“세상 사람들은 전도되어 유와 무의 이변(二邊)에 의지한다. 여러 경계를 취하여 마음으로 계착(計着)한다.

가전연이여, 만약 경계가 실재한다고 수(受), 취(取), 주(住), 계(計)하지 않는다면 고(苦)는 생(生)할 때 생하고 멸(滅)할 때 멸한다. 이에 대해 의심하지 않아서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능히 스스로 아는 것을 정견(正見)이라고 한다.

여래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전연이여, 여실히 세상의 집(集)을 정관(正觀)하면 시상이 무(無)라는 견해는 생겨나지 않을 것이요, 여실히 세상의 멸(滅)을 정관(正觀)하면 세상이 유(有)라는 견해는 생겨나지 않는다.

가전연이여 여래는 이변(二邊)을 떠나서 중도(中道)에서 말한다.”

* 연기(緣起), 무자성(無自性), 공(空)

“연기에 의해 이루어진 것, 우리는 이것을 공성(空性)이라고 한다. 이것은 인연에 의한 시설(=假名)이며 이것은 실은 중도이다.” ([중론] 제 24장 18계)

“어떤 존재도 인연으로 생겨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어떠한 존재도 공(空)하지 않은 것은 없다.”(중론 제 24장 19계)

3. 도교의 가르침

* 세상 사람이 모두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일 뿐이라고 안다. 그러나 그것은 추악함일 뿐이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착함이 착함일 뿐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악함일 뿐이다. 그러므로 유와 무는 서로 낳으며,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가 이룬다.....그러므로 성인은 무위(無爲)로 일을 처리하고 말없음(不言)의 가르침을 행한다.... 자신이 낳고도 소유하지 아니하고, 하고도 자부하지 않는다. 공을 이루어도 자부하지 않으니 오직 자부하지 않는 까닭에 공(功)이 떠나지 아니한다. (天下皆之美之爲美, 斯惡已. 皆知善之爲善, 斯不善已. 故有無相生, 難易相成, 是以聖人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教. 萬物作焉而

不辭 ,生而不有, 爲而不恃. 功成而不居, 夫唯不居, 是以不去.)

*상덕(上德)은 덕이라 하지 않으므로 덕이 있다. 하덕(下德)은 덕을 잃지 않으므로 덕이 없다. (上德不德, 是以有德, 下德不失德, 是以無德)

4. 생명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이다. (에릭 프롬)

소유와 존재라는 두 가지 실존 양식의 차이는 생명과 죽음의 차이와 함께 인간실존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를 구성한다.

인류학과 정신분석학의 경험적 자료들이 제시한 바로는 소유와 존재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간체험의 두 가지 형태로서 그 각 양식의 강도가 개인의 성격 및 여러 유형의 사회적 성격의 차이를 결정한다.

1)

스즈키가 “선종에 대하여”라는 강론에서 인용한 마쓰오 바쇼가 지은 하이쿠(俳句)는 이렇다.

눈여겨 살펴보니
울타리 곁에 냉이꽃이 피어있구나.

영국의 19세기 시인 테니슨의 시는 이렇다.

갈라진 벽 틈에 핀 꽃이여,
나는 너를 그 틈에서 뽑아내 지금 뿌리째로 손 안에 들고 있다.
작은 꽃이여, 만약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면,
나는 신과 인간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으련만

테니슨의 시는 소유하려는 욕망을, 바쇼의 하이쿠는 그 존재만 바라본다.

존재양식과 소유양식의 차이는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아니라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와 물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의 차이이다.

소유지향은 돈, 명예, 권력에의 탐욕이 삶을 지배하는 산업사회의 특성이다. 문제는 우리가 소유형태의 삶 외에 존재형태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다.

2) 생명의 원칙 2 :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라.

상황을 변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의 지각은 자신과 타인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세상을 어떤 렌즈를 통해서 보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렌즈 자체가 세상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 Pygmalion Effect 피그말리온 효과 : 자기달성적 예언.

3) 논어의 자기 주도

01-01-01 子曰 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 有朋^이 自遠方來^면 不亦樂乎^아 人不知而不慍^{이면} 不亦君子乎^아

㉮ 공자가 말하였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하랴?

벗이 먼 곳으로부터 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하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니랴?”

01-04-00 曾子曰 吾 日三省吾身^{하노니} 爲人謀而不忠乎^아 與朋友交而不信乎^아 傳不習乎^{이나라}

㉮ 증자가 말했다. “나는 하루에 세 가지로 나 자신을 반성하나니, ‘남을 위해 일을 함에 충실하지 않았는가?’ ‘친구와 사귀에 미덥게 하지 않았는가?’ ‘스승에게서 배운 것을 익히지 않았는가?’ 이다.”

01-16-00 子曰 不患人之不己知^요 患不知人也^{나라}

㉮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자기가 남을 알아보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